

레저 & 트래블

■ '보훈의 달' 자녀들과 떠나는 호국여행

전라도 맛 기행



당진 '함상공원'의 구축함

삼별초 격전지 진도의 남도석성

삼별초·이순신... '애국魂'을 찾아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아이들 손을 잡고 호국 체험 여행을 나서보는 것도 의미있는 여행이다.

▲삼별초 격전지 진도=진도는 고려의 자주를 꿈꾼 삼별초의 피땀 어린 항쟁의 근원지다. 몽고와의 치욕적인 강화조약에 반발한 삼별초는 배중손을 지휘관으로 삼아 원정을 폐하고 왕족인 승화후 온을 새왕으로 옹립, 반란을 일으킨다.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용장산성(사적 제126호)은 벽과 돌을 통해 진도로 들어온 삼별초가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삼별초는 이곳 용장산성에서 9개월동안 머물면서 대몽항쟁을 위해 그 세력을 넓혀 갔다. 하지만 여몽연합군의 대대적 공격에 용장산성은 무너지고 삼별초의 처절한 패배가 시작된다.

현 용장산성에는 계단식으로 조성된 방대한 규모의 행궁지가 남아있다. 또 배중손 장군이 산성을 쌓을 때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용장사의 석복좌상(유형문화재 제17호)과 삼별초 관련 자료를 전시해 놓은 용장산성 홍보관도 조성돼 있다.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부근에 여몽연합군과

승화후 온 일행이 격전을 치렀는데 이적전에서 승화후 온과 아들 향이 몽고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곳이 바로 왕무덤이다.

승화후 온을 잃고 남하하던 김통정 일행이 여몽연합군과 다시 싸운 곳은 '돌아온 백구마을'로 알려진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부근. 마을 앞 곳곳에 남아 있는 봉분들이 처참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임회택 남동리에 위치한 '남도 석성'은 서쪽으로 퇴로를 잡은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다. 남도석성은 삼국시대 쌓은 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왜구를 막기 위해 증·개축한 것으로 보존이 잘 돼 있다.

진도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지산면 세방리는 기상천외로 선정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다도해 너머로 펼쳐지는 낙조가 일품이다. 문의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44-0151.

▲이순신 장군의 최초 승전지 '거제'= 400

여년전 일본의 침략으로 백제간투의 위기에 놓인 조선을 되살린 첫 승리의 장소가 거제도 옥포대첩 기념공원이다. 임진년 5월 7일 거제 옥포에 진을 친 외선 30여척은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에 의해 수중 안장된다.

옥포대첩의 그 현장에 기념관과 이순신 장군 사당, 기념탑등을 세워 임진왜란의 발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볼 수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비탄의 언덕, 해금강 등도 둘러볼 만 하다.

문의 옥포대첩기념관리사무소 055-639-8129.

▲자유를 찾아 달리는 '파주'= 임진강 물줄기를 따라 가는 임진각은 '평화의 종가'를 비롯해 한국전쟁 후 포로교환을 위해 세워진 '자유의 다리' '평화누리 공원' 등 아이들과 함께 한 번쯤은 가볼만 한 곳이다.

임진강 철교를 달리는 경의선 열차는 분단 조

국에 살고 있는 현실을 자녀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줄 만하다.

지난 2005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성된 평화누리 공원은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이국적 풍치가 매우 아름답다.

문의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031-940-4362.

▲당진 삼교호 '함상공원'=660억원 짜리 군함의 함장이 되어 보자. 바다 위에 2대의 군함이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 왼쪽은 입을 벌리고 있는 상륙함(LST-679호), 오른쪽은 전투함인 구축함(D·D-925함)이다.

상륙함은 1945년 미국에서 건조, 미 해군에서 활동하다 1958년 10월 한국에 인도돼 '화산함'으로 명명됐다. 현역에서 55년간 활약했다. 실제 월남전에 보트 피플 구출작전에 사용됐다. 구축함은 주로 잠수함과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함. 약 17년간 국도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1998년 퇴역했다.

상륙함의 바우더어(bow door)를 지나면 해군의 역사와 활동상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있다. 구축함은 체력관으로 꾸며졌다. 조타실 키를 잡고 함정상에 앉아 전초관을 통해 작전명령을 내리는 재미가 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문의 041-362-3321.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화정동 '제주도 바다' 자리돔



새콤달콤 물회 맛 일품

초고추장에 얼음 등등 '광주식'

섬들 다가온 여름. 차차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이다. 무언가 싸다르고 맛있는 것을 찾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바닷가에서 먹은 신선한 횡감이나 매운탕이 떠오르지만 한 끼 식사를 위해 동해안이나 제주도 찾을 수는 없다.

최근 제주에서는 '자리돔 축제'가 열렸다. 제주 청정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자리돔은 제주 특산물로 이름이 높다. 자리물회, 자리구이, 자리강회 등 메뉴판을 떠올리기만 해도 벌써 바다를 한 모금 삼켜 버린 느낌이다.

자리돔은 바닷고기로 6~8월 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다. 특히 단백질, 칼슘이 많은 영양식이며 자리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도 제주 자리돔을 맛볼 수 있다. 서구 화정동 서부소방서 사거리 '제주도 바다'는 제주와 남해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자리돔으로 구이와 회, 물회를 맛볼 수 있는 자리돔 전문점.

조선희 사장(44)은 "자리돔은 구이나 회도 맛있지만 날씨가 더워질 때에 서부소방청 물회가 입맛을 돋우는데 더 적격이다"고 말했다.

조사장이 추천하는 자리돔 물

회는 제주도식이 아닌 광주식으로 변형시켰다. 제주식은 된장을 풀지만 초고추장을 넣어 오이 냉채와 같이 새콤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오이, 양배추, 깻잎 등 신선한 각종 야채와 특제 초고추장, 제주에서 공수해온 필떡거리는 자리돔 20여마리를 뼈를 발라내 넣고 얼음을 등등 띄운 자리돔 물회는 보기만 해도 입안에 새콤한 맛이 전해진다.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 음식으로 적격이다. 8마리가 나오는 자리돔이기는 서비스.

062-385-0807. 자리돔물회 소 2만원, 중 3만원, 대 4만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 ★ 6개 만점 >

가이A/S센터, 동아.이트, 금호월드, 생용기센터, 서부소방서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충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횡집, 레스토랑, 고기전문점
1층 50평 임대, 1층 30평 임대
학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학원최적지)
토지매도
상가건물매매
모텔매매

다우공인중개사 0523-8114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쌍대리 전원주택지 (평당 5만)
정당 60만
용봉지구 상업지역 (평당330만)
용봉지구 3층건물(7억)
용봉지구 3층건물 (10억 5천만)
정흥진 펜션부지 (평당15만)

금부부동산컨설팅 061-8949
쌍당매매
고시원매매
건물매매
주유소매매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입
첨단지구상업용지
상부지구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수원택지개발지구
전용가능한사업부지
우양임야
몰류창고부지
공장
모 집
실전경험 풍부한 실장님과 적극적인 남-여가족을 모십니다.

현대공인중개사
금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급히 구합니다
급히 팝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를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근리사실/근리상가 상담
모텔/원룸 상담
상가주택/주택
공장
임야/농지
아파트